



나의 回甲紀念號를 받으며

又步張旺祿

1981년과 1982년의 이맘때 나는 당시의 학과장으로서 「영학논집」 No. 5, 朴時仁교수 회갑기념호와 同誌 No. 6 黃燦鎬교수 회갑기념호에 각각 기념사를 쓴 적이 있다. 이제 내가 받을 차례가 되었으니 감회가 깊지 않을 수 없다.

이 책과는 별도로 몇몇 분의 후배교수가 발기하여 그분들의 刊行委員會가 펴낸 나의 回甲紀念論文集이 나왔는데 80여명이 기고한, 1300면이나 되는 방대한 그 논문집의 책머리에 考古學科의 三佛 金元龍교수가 붙인 축하의 書畫를 실은 페이지가 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여백이 생겼으므로 나의 「語錄」 중에서 몇줄 인용하여 그 여백을 채우게 해달라는 출판사측의 요청을 받았다. 나에게 語錄같은 거창한 것이 없으므로 짧막한 詩를 지어 실게 했다. 여기에 그 自作詩를 인용하고 이것을 풀이하여 回甲을 맞은 감회를 쓰는 것을 대신 하고자 한다.

사람을 좋아하고 책을 즐기며

외길 걸어 온 한 인생

發憤忘食 樂以忘憂

Fugit inreparabile tempus.

어느덧 해묵은 가지 위에도

화사한 꽃, 열매 영글다.

사람을 좋아하고 책을 즐기는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직업은 教職일 것이므로 나는 그런 의미에서 행운자이며, 또한 名實 공히 우리나라 최고학부에 줄곧 30년을 대과없이 몸담아 올 수 있었으니 더한 층 그러하다.

詩 속에 인용한 한문은 論語述而篇에 나오는 말이다. 葉公이 子路에게 孔子의 사람됨됨을 물었으나 子路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孔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네 왜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할 걸 그랬지 <그 사람은 학문에 발분하면 식사를 잊고 학문을 즐김에 걱정을 잊어서 자기가 늙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물론 나는 孔子님과는 거리가 까마득하지만 대학에서 학생들과 즐겁게 지내다 보니 나 역시 늘 젊은 기분으로 살아왔는데 어느덧 回甲을 맞게 되니 孔子님 말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틴어 “Fugit inreparabile tempus.” (Time flies irreparably.)는 Virgil의 말이다. 처음엔 Ovid의 시의 구절인 “Tempus edax rerum.” (Time, the devourer of all things.)를 인용할까 했었다. 이는 Milo가 늙어서 겨울에 비친 주름살진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절세미인이었던

젊은 시절의 자기의 얼굴을 회상하고 울면서 했다는 말이다. 그 말은 보편성이 있는 만고 불변의 진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러한 관점을 강조하여 내 회갑이란 慶事(?) 와 결부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똑같이 진리이면서도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택하여 인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자신의 수명대로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은 一次的인 人間의 條件이지만, 나이를 먹어도 헛먹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이상 바랄 수 있겠는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전만 못해졌다 할지라도(아직 나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 않지만) 그 가지에 꽃이 화사하게 피고 열매가 제법 영근 回甲 맞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後生可恐이니 出藍이니 하는 말도 있듯이 내가 못한 일을 후배들이 잘들 해내고 있는 것을 본다. 내가 여태까지 해 온 일이 후배들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밀거름이 되어오고 있다면 그 보람은 1940년대 후반에 나 — 서울大 문리대 영문과 제 2회 졸업생이고 同 대학원 제 1회 졸업생 —를 이끌어 주신 은사님들인 故 李敷河, 李仁秀교수, 고령에도 아직도 건재하신 權重輝교수와 더불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나의 직장과 동료 및 우리 영문학파, 그리고 또 물론 우리 나라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모든 분들과 우리 사회에 충심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안다.

그리고 나는 내(自作)의 號가 「又步」인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려해 왔고 앞으로도 나에게 주어진 인간의 조건이 허락하는 날까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을 것이다.

1984년 11월 20일